

MZ는 '촌캉스'하러 시골로, 가족들은 '키캉스'하러 호텔로

(촌+바캉스)

(키즈+바캉스)

2030세대 중심 촌캉스 유행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

메이필드호텔, 롯데리조트 등
키캉스 패키지 상품 다수 선보

속세를 벗어나 농촌에서 휴가를 즐기겠다는 이른바 촌캉스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숙박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질세라 과거 코로나19 시절 호캉스(호텔+바캉스)의 인기를 누렸던 호텔업계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7월 업계에 따르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촌캉스를 찾는 여름휴가 문화가 퍼지고 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촌캉스 및 시골 여행에 대한 언급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촌캉스의 SNS 언급 횟수가 2021년에는 5만 건에 불과했으나 엔데믹을 맞이한 2022년에는 약 8만 건을 넘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지로서 농촌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농촌 풍경의 사진

/안재선 기자



롯데리조트속초 인피니티 풀 사진

/롯데리조트속초

농촌을 찾는 배경에는 휴가철 일상에 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엠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2%가 올해 여름휴가 때 '도심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자연을 즐기며 현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촌캉스'로 보내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휴가철 고객요구에 응답하고자 민박업자들은 '농촌 체험 및 활동'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골 할머니 집을 연상케 하는 강원도 삼척의 한 민박업체는 숙박과 함께 위아래 '뽕뽕바지' 세트 구성된 2030 촌캉스 룩과 이를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변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산책 코스 안내 및 자전거 대여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해당 숙박은 커뮤니티에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증샷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현재 해당 숙박

은 7월 전체 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촌캉스 열풍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홍보 움직임에 나섰다. 특산물을 직접 수확해 보고 마당에서 캠핑을 하는 등의 농촌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촌캉스가 2030세대를 주력으로 삼고 있다면 호텔업계는 가족 단위 고객층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최근 호텔 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키캉스(키즈+바캉스) 패키지 상품을 다수 선보이고 있다.

메이필드호텔은 아이들의 취향에 맞춰 객실을 꾸민 '에디키즈 콘셉트룸'을 추가로 선보였으며, 롯데리조트속초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린세스 오브 퍼레이드' 패키지를 출시했다. 해당 패키지는 호텔에 숙박하는 어린이들이 왕자와 공주로 변신해 여름맞이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상품이다.

시민들 역시 연령대별 휴가지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인을 20대라고 소개한 노모씨는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조용히 재밌게 지내고 싶다"며 촌캉스에 가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답했다.

반면 6세, 7세 아이들을 둔 40대 김모씨는 "여름휴가 동안 호텔에서 아이와 쾌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한 곳에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 호텔이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뒤풀이 아이가 원하고 재밌어하는 곳으로 떠날 것"이라며 이번 여름휴가를 호텔로 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수분·지속력' 높인 여름 메이크업 제안

헤라, 광택·생기 연출 제품 출시
에스쁘아 '세레나데 에디션 세트'
에뛰드, 단종템 마케팅 승부수

아모레퍼시픽이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 뜨거워 날씨에도 지속력을 갖춰 맑고 투명한 메이크업을 완성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헤라는 최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와 '센슈얼 립앤치크'를 출시해 '글로우'를 주제로 한 여름 메이크업을 제안한다.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는 헤라의 인기 제품 중 하나다. 헤라는 여름 신규 색상으로 핑크 베이지 톤인 '클루리스'와 자두 빛깔 '플럼 프렙'을 추가했다. 해당 제품은 빈틈 없이 밀착돼 여러 번 덧바를수록 선명한 색이 나타나고 여름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광택감까지 갖췄다는 것이 헤라 측의 설명이다.

'센슈얼 립앤치크'는 입술과 볼에 함께 사용하는 다용도 제품이다. 헤라는 입술과 볼에 스며 녹아드는 제형을 구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와 '센슈얼 립앤치크'
/아모레퍼시픽

현해 피부 본연의 톤 위에 얇게 베어 나오는 투명한를 연출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한다. 색상은 동백, 라제리, 얼리 라벤더 등 총 3가지다.

아모레퍼시픽의 프리미엄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에스쁘아는 '세레나데 에

디션 세트'를 내놨다. 이번 기획은 에스쁘아 대표 색상인 '세레나데'를 립 제품과 볼 터치 제품으로 선보인 것이다.

에스쁘아의 '세레나데'는 뷰티 업계 인플루언서, 셀럽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층에서 품절대란을 일으켰던 색상이다. 이에 대해 에스쁘아는 미지근한 핑크 색이 피부 혈색에 오묘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고급스런 메이크업 색상으로 주목받아 소비자 인기를 끌었다고 분석했다.

'꾸뛰르 립틴트 블러 벤텍'은 완전 무광 제형의 립 제품이다. 기존 벤텍 립 제품의 건조함과 조임 현상을 개선해 얇고 편안한 감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에스쁘아 측의 설명이다.

세레나데 색의 볼 터치 제품인 '톤페어링 리퀴드 치크'는 세럼 성분과 고굴절 오일이 피부 속까지 관리해 준다. 에스쁘아에 따르면, 방금 메이크업을 마친 듯 맑게 지속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에뛰드는 여름 메이크업

시장에서 '단종템 마케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에뛰드 '젤리광 컬렉션'은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룩 앤 마이 아이즈, 디어 달링 워터젤 틴트 등으로 구성됐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다. 단종된 색상이 재구성됐을 뿐 아니라 기본 색상, 음영 메이크업용 색상, 포인트 색상 등을 4가지로 한 데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룩 앤 마이 아이즈'는 90년대생이라면 학창시절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눈 화장용 제품이다. 이번 '젤리광 컬렉션'을 통해 빙산의 일각, 내마음을 돌려줘, 미니피치 등이 재출시된다. 에뛰드는 에뛰드만의 작명 또한 소비자들에게 추억과 재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디어 달링 워터젤 틴트'는 촉촉함과 지속력을 동시에 갖춘 립 제품이다. '젤리광 컬렉션'으로는 청량감을 더한 신규 색상 2종이 나온다.

/이청하 기자 mlee236@

LG생활건강 고객 피드백 반영한 '강아지 발씻자' 출시

LG생활건강이 산책 후 강아지 발 씻기기가 고민인 고객들과 함께 새로운 제품을 선보인다.

LG생활건강은 강아지용 풋샴푸 '강아지 발씻자'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강아지 발씻자'는 LG생활건강 발을 씻자 팀과 핏케어 종합 브랜드 시리우스 팀이 협업해 만든 제품이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양 팀은 제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소셜미디어 엑스 계정에서 고객들과 공유해 왔다.

개발 현황을 '주간 보고' 형식으로 게시했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했다. 피드백 내용 가운데 강아지의 피부가 사람보다 연약하다는 점을 보완해 보습 성분을 첨가했다.

또 손 쉽게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노 워시' 유형으로 개발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당규락, 350억 판매성과

유한양행의 혈당 관리 제품이 판매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한양행은 최근 혈당 유산균인 '유한양행 당규락' 누적 매출이 35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출시된 유한양행 당규락은 유산균으로 혈당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처음으로 유산균 자체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가능성을 인정받은 유일한 개별인정형 유산균이다.

유한양행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HAC01의 인체적용시험결과에서 당화혈색소가 유의적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식후 2시간 혈당도 유의적으로 감소했음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이화의료원, '다빈치 SP'로 로봇 수술 분야서 선도적 역할

직장암·간 전이암 수술 동시 시행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진이 로봇 수술 분야에서 역량을 쏟고 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6월 20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다빈치 SP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직장암과 간 전이암 수술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수술은 간 전이암 환자에서 해부학적 간 절제를 포함한 동시 수술로, 국내 최초 사례다.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처음 혈변을 발견한



노경태
대장항문외과 교수

조영수
간담체외과 교수

후 올해 1월 다시 혈변이 있어 이대서울병원을 방문했다.

A씨의 경우 대장내시경을 통해 직장암이 확인됐고 추가 검사 과정에서 간

좌외측구역에 전이가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이대서울병원 소속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외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은 함께 다학제 진료를 시행했고 6차 합암 치료 후 직장암 및 간 전이암에 대해 동시 수술을 결정했다.

해당 수술은 다빈치 SP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노경태 이대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와 조영수 간담체외과 교수가 집도했다.

먼저, 노경태 교수는 종양을 포함한 직장 및 하부 S자 결장을 종양 주변 림

/이청하 기자